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03위 성인

### 성 홍영주 바오로 (1801-1840)

명문가의 자손 홍영주는 서울에서 태어나 충청도 내포(內浦) 지방 여사에서 자랐다. 그는 대대로 이어온 신앙을 이어받아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형 홍병주(洪秉周)와 함께 충청도 내포 지방의 회장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서양 신부들이 붙잡혔을 때, 홍영주 역시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죄로 형과 함께 체포되었다. 1840년 2월 1일, 그는 하루 먼저 순교한 형의 뒤를 따라 2명의 교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성화\_조경자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연중 제10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7(26),1-2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창세 3,9-15

화답송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7ㄴㄷ)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 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

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 환호송 요한 12,31-32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마르 3,20-35

영성체송 시편 18(17),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 기혼샘



기혼샘 수로 터널

예루살렘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무려 기원전 19-18세기 이집트 문서에 ‘류샬리뭉’(rushalimum)으로 기록되었을 정도지요. 예루살렘의 별칭 ‘시온’은 ‘메마른 곳’이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건조한 지역이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바로 기혼샘입니다. 이 샘의 중요성을 말해주듯,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이을 때 이곳에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1열왕 1,38-39).

기원전 8세기, 히즈키야 임금의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려고 기혼샘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합니다. 기혼샘이 성 바깥에 있었으므로, 적이 침공해와도 물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약 500미터의 터널을 뚫어 기혼샘물을 끌어와 성안에 못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내어 눈을 뜨게 해주신 곳, 바로 실로암입니다(요한 9장). 지금도 예루살렘의 ‘다윗 성’ 유적지에 가면, 이 수로 터널을 걸어 기혼샘부터 실로암 못까지 순례할 수 있습니다. 히즈키야 임금의 터널 공사에 대해 기록한 실로암 비문은 현재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혼은 성경에 에덴 동산과 관련된 지명으로도 언급됩니다. 창세 2,10-14에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이 나오는데요, “피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기혼”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실재하

는 지명입니다. 그에 비해 피손과 기혼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실재했던 강은 아닌 듯합니다. 에덴 동산이 원조들의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장소가 되자, 성경에서는 실제 지리에서 찾을 수 없는 강 이름을 써서 위치를 숨기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강 가운데 하나로 기혼이 언급된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옛 성전이 봉헌된 곳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위치적으로 기혼샘은 성전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원조들이 상실한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암시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과 성전 사이에는 공통점이 여럿 존재합니다. 원조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을 자유롭게 뵈 수 있었듯이, 성전 역시 하느님께서 인간을 공식적으로 만나 주시던 공간입니다. 커룹의 존재도 공통됩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는 커룹들이 불 칼을 들고 지켰듯이(창세 3,24)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모셔진 계약 궤 위에 커룹이 장식되어 속인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에덴 동산을 다시 접할 수 있었으며, 이후 예수님께서서는 금지된 지성소마저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생각하면, 기혼샘은 아담이 상실하였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되돌려 주신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성지입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③ - 언제나 더 열려 있는 사랑, 열린 세계의 원동력

회칙 「모든 형제들」은 “언제나 더 열려 있는 사랑”(95-100항)과 “폐들의 세계를 넘어서”(101-104항)를 통해 건전한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정신을 ‘열린 세계를 구상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전체가 부분보다 위대하다.”(234-237항 참조)라는 공동선과 평화 실현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성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체”와 “부분”은 각각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두 가지 정신을 대립과 배타의 관계로 보아 어느 하나만을 취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접근으로는 획일과 동형(同形)의 세계, 폐쇄와 고립의 지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 증진과 공동선의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함과 색깔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전체 세계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도모하는 수용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더 열려 있는 사랑”(95-100항)에서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인간관계를 지역과 국가에 적용한 건전한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돌보는 하나의 공동체, 모든 이를 통합하는 열린 사회,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공동 운명의 세계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습

니다. 한편, 회칙은 오늘날 사회가 특별히 포용해야 할 이웃으로 실존적 이방인과 감춰진 망명인을 소개합니다. 실존적 이방인은 우리의 이해관계 범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가리키고, 감춰진 망명인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력이 떨어져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장애인과 노인 같은 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는 학교, 직장, 동창회, 심지어 성당 모임에서조차 똑같은 자격이 있음에도, 거리를 두거나 따돌림을 겪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역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무시되거나 내버려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인 인종주의는 바이러스처럼 수시로 변이하고 잠행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세계 차원으로 확장하면,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자리에서 이를 인류의 추문이라고 통탄하기도 했습니다.

열린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여 돌볼 뿐 아니라 그 능동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그런 사회생활은 누구나 다 유일무이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 용인하는 시민의식과 양심을 형성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용기를 갖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

## 누구에게나 소중한 첫 자리의 기억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 저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 신념을, 저도 모르는 사이 가족과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너도 나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냐?’라고 중용했습니다. 원래 제 신념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였습니다.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마주하다 보니, 마치 세상 모든 게 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 보인 겁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지요. 그러다 삶의 어려운 광야 시기에 직면하고 세상 집착들을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신념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서 남은 것은 하느님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제 신념을 따르라는 암묵적 강요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 당시엔 알지 못했는데, 제가 타인의 경계를 훌쩍 허물고 들어가 교만하게 행동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산다는 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겠지요. 하지만 저의 본질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난 신념을 어떤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아 인

식을 하면서 절제하려고 하지만, 간혹 주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거나 불안할 때면, 여지없이 그 습성이 재현되곤 합니다.

하여,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하느님을 꼭 첫 자리에 두지 않아도 된다.’로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자녀들, 친정 식구와 이웃에게 가졌던 ‘이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과 상대를 주도하고 판단하려던 유혹이 좀 사라지더군요. 하느님께는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어, 굳이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잘 이끌어 가실 거란 믿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간다고 한들, 완벽하게 그분 마음에 들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는 ‘나’라는 존재가 첫 자리고, 또 ‘우리 모두’가 그분께 사랑받는 첫 자리라는 거, 그 위대함이 아닐는지요. 문득 제 지인이 생각납니다. 하루의 첫 묵주기도를 제 건강과 사도직을 위해 봉헌해 주신다는 그분, 당신의 가족도 아닌 제가 가장 귀한 기도의 첫 자리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제 삶에 열매가 맺힐 때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피조물의 기도와 사랑에도 이렇듯 감격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당신 첫 자리 등급으로 매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찌 표현해야 할는지요. 하느님의 첫 자리가 되어,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용기가 생긴 지금, 조금은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감을 통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영그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비에 옷 젖듯 살며시 말이지요. ☪



## 교구 소식

###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6(주일) 10시~12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화) 10:30 목주기도, 11시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례 손희송 주교, 의정부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주관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청년 인문학 피정

일시 7/6(토) 15시 ~ 7(주일) 13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주제 현대를 사는 젊은 신앙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교재 다미앵 클레르제-귀르노, 「무기력한 날엔 아리스토텔레스」, 자음과모음, 2018

대상 20~30대

회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 가톨릭 성교육 - 한국틴스타워크숍(서울)

일시 6/22~7/13, 매주(토) 09:30~17시

장소 명동 영성센터 (명동대성당)

대상 가톨릭 성교육에 관심있는 부모, 청년

회비 18만원

문의 010-6651-2359 한국틴스타 사무국

031-850-1448 가정사목부

※ 의정부교구 신자 50% 지원 [선착순 15명]

신청 ▶



### 2024년 신입교리교사학교 동반자 추가 모집

대상 신입교리교사학교를 수료한 1년 이상 경력의 어린이·청소년부 교리교사 (현·퇴임 교리교사 모두 가능)

인원 50명

접수 6/19(수)까지

문의 031-850-1458 청소년사목국

※ 자세한 내용은 본당에서 공문 참조



### [전시] 사진과 함께 하는 말씀 묵상展 - 흥덕희 아녜스 사진전

일시 6/22(토)~7/5(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 카카오톡 @g\_pyeongwha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6/21(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표승호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미사 · 피정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 원주교구**

6/14(금)~16(주일) 강한수 신부 (의정부교구)  
7/19(금)~21(주일) 안소근 수녀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8/16(금)~18(주일) 조규만 주교 (원주교구)  
9/20(금)~22(주일) 남궁민 신부 (원주교구)  
문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험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 7/1(월)~4(목)  
우도해변포함: 7/12(금)~14(주일)  
7/20(토)~22(월),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침묵피정 [4박5일]  
7/26(금)~30(화), 8/6(화)~10(토)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주1회]  
8/26~12/26, 매주(월) 13:30~15:30  
장소: 예수회 센터  
문의: 02-3276-7794

**영성의 책꽂이 - 서강대학교**

일시: 6/17(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주제: 새롭게 상상하는 이나시오 양심 성찰  
강사: 예수회 심종혁 신부  
문의: 02-705-4711 [무료]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대회**

일시: 6/15(토) 09:30~17:30 (미사안수)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강사: 구요비 주교, 송봉모 신부, 이창진 신부, 김태광 신부  
대상: 전신자 누구나 [피정비, 중식 무료]  
문의: 02-874-6346, 010-3310-882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찬양과 치유기도회  
일시: 6/1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성지순례&왜관성베네딕도(신축)수도원 전례**

7/13(토)~16(화) 수도원, 부산8, 마산6  
8/17(토)~19(월) 원주7, 청주5, 안동7  
8/24(토)~26(월) 수도원, 대구17  
10/12(토)~16(수) 울릉도, 독도, 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7/5,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묵피정: 6/21(금)~23(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강사: 6/11 박철민 베드로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8/24(토)~25(주일), 9/21(토)~22(주일)  
3박4일: 6/27(목)~30(주일), 7/18(목)~21(주일)  
8박9일: 6/13(목)~21(금), 7/4(목)~12(금)  
40일: 10/4(금)~11/12(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6/21(금)~29(토), 7/26(금)~8/3(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교육 · 모집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 수영장근무자 모집**

채용: 인명구조원, 인명구조원 보조, 간호사(조무사)  
접수: 6/28(금)까지,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생활 속의 이나시오 기도 모임 22기 모집**

이나시오 영신수련 10개월 과정  
오감활용으로 복음을 기도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전 첫모임: 6/17(월) 10시  
오후 첫모임: 6/19(수) 20시  
장소: 종산 성당 대성전 / 문의: 010-5570-6337

**예수회 센터 여름방학 특강 - 7월 개강**

구약성경 아카데미: 하느님께 이르는 노래들-시편해설  
주원준 박사 / 매주(화) 19:30~21시  
룻을 읽자!  
김민 신부 / 매주(수) 10시~12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 매주(목) 10시~12시  
※ 각 6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s.kr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성인&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출발: 6/29(토)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주중 영어연수, 주말 봉사활동(봉사인증 가능)  
문의: 053-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DIocese of UIJEONGBU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6/15(토) 15시	성북동 수도원 (선잠로9-6)	010-8573-0567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23(주일) 09시	서울 분원 (서울 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15(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마리아의작은자매회	만 40세 이하 여성 / 후암동 (서울역 근처)		010-5690-1099 (수시로 가능)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6/15(토) 1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덕정 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가톨릭에서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접수: 6/16(주일)까지 (우편접수, 전화문의 사절)  
주소: (11452) 양주시 화합로 1457-17 덕정성당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분도출판사 명동서원 관리 및 판매 직원 모집**

채용: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자격: 주말근무 가능자  
(영어, 중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근무: 주5일 (09시~18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bundomaejang@gmail.com

**우니따스 청소년, 성인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연습: 성인 매월 1,3주 / 청소년 매월 2,4주  
장소: 원흥동 성당  
문의: 010-2736-5727 / 010-5031-3475

**민락동 성당 관리장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운전면허1종 보통  
소방안전, 승강기안전 등 시설물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면접: 개별 통보 (서류 일체 반환 불가)  
접수: 6/14(금) 우체국 소인까지  
주소: (11770)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51번길7  
민락동 성당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오디션: 6/23(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www.logoschoir.org 입단 문의 참조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4 한반도 평화 음악제**

전국 6개 성가단의 평화를 향한 연합 합창무대  
일시: 6/15(토) 16시 [미사 후]  
장소: 참회와속죄의성당 대성전  
출연: 가톨릭음악합창단, 가톨릭시니어합창단,  
마니피카터어린이합창단, 살루떼콰이어합창단,  
수아비스합창단, 정릉4동 이나시오성가대  
주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행사: 모니카 교회음악원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무료]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 (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2024년 제2회 김수환추기경 추모음악회**

"모든 이를 위한(Pro Multis)" 음악회  
일시: 6/27(목) 19:30  
장소: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후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10-6476-3048 이예림  
※ 전석 무료 (사전예약 필수)  
문자 남겨주시면 사전예약 링크 발송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9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7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  
10/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5만원)  
10/23 발칸3개국 메추고리에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강의**

**월간성서 <6월호>**

주제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강사 이민영 신부 (대구대교구,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날짜 6/6(목), 13(목), 20(목) [총3회 업로드]



## ‘사도’ 바르나바

명동대성당 제대 뒷면에는 사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들을 세어보면 12명이 아니라 14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열네 사도 초상화’인데요, 1926년 장발(張勃, 루도비코, 1901-2001) 화백이 완성한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열두 명에다 사도 바오로와 그의 동행자 바르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apostolus)는 좁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사도로 삼은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데, 넓게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들(1코린 12,28), 더 넓게는 특정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한 대표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성 치릴로와 메토디오를 ‘슬라브 민족의 사도’, 성 파트리치오를 ‘아일랜드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르나바는 열두 제자 중 하나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도로 불립니다. 그에 관해서는 사도 4장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36-37절).

바르나바의 활동은 사도 바오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회심하고 다마스쿠스를 거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열두 사도와 바오로를 중재해준 이가 바르나바입니다(사도 9,26-27). 바르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파견을 받아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게 되는데, 그때 타르수스에 머물고 있던 바오로를 데려와 그곳 교회를 함께 이끌었습니다(11,22-26). 또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바오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전달하였습니다(11,29-30), 바오로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그는(13,1-14,28) 49년경 바오로와 함께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도 참석하였습니다(갈라 2,1-10). 50년경 떠난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르나바는 요한 마르코의 동행 문제를 두고 바오로와 의견이 갈려 결국 마르코와 함께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 그곳에서 전도하게 됩니다(15,36-40). 한편, 1코린 9,6에 의하면, 사도들 중 교우들에게 신세 지지 않고 스스로 노동해서 생계비와 전교 여행 비용을 충당한 이는 바르나바와 바오로뿐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150-215)와 에우세비오(260/265-339)는 바르나바가 루카 10,1-12에 언급되는 일흔두 명의 제자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르나바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였고 「바르나바의 편지」(Epistola Barnabae)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5세기에 쓰인 「바르나바의 전도 여행과 순교」에서는 키프로스 섬에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488년에 바르나바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키프로스 섬 살라미스에 있는 성 바르나바 수도원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은 6월 11일입니다. ☸

